



“내 영혼이 잠 못 들 때까지 내가 밤사에 잠되고 기쁘게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성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January 13,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1월 13일

5-2호

새롭게 출발 달

믿음성장 /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 아가야 왜 거기서 울고있니?
나에게 얘기해 주겠니??
나는 너의 과거의 실수와 현재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네가 가진 것을 주지만
두려움은 네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간다.

예 배 WORSHIP

January 13, 201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정줄리 권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누기복음 15:11-24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찬송가 404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오정은 집사, 구 민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구 민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3:15-22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목상에세이

김준곤 목사의 [예수칼럼] “악마의 풍자적 팔복(八福)”

교권 쟁취의 챔피언은 복이 있나니
 나의 충성된 종에게 주는 면류관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자주 성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나라 시민권을 얻을 것이다.

온갖 이유를 들어 교회 출석과 헌금을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나라 준회원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 이름으로 증오와 분노와
 고발과 싸움을 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나라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신앙 사업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나라 신입 회원증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인도와 사랑과 자유와 정의를 설교하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최대한 탈색해 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명예 제자가 되리라.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사랑에 충만한 늙은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과 흰 수염,
 그리고 자비로운 손길을 밝은 빛으로 비쳐 강조합니다.
 열 계단 위에서 값진 옷과 화려한 모자를 쓰고
 언짢은 표정으로 이들을 내려다보는 형제들은
 어둡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빛은 사랑과 구원을,
 어둠은 시기와 무정과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기도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내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안에 한 몸임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지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S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 (요 1:18)

교회와사역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대한 압박감 혹은 실패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작으면서도 교회다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는 교민의 일환으로 앞으로 칼 베이더스, 『작고 강한 교회』(생명의 말씀사, 2018)의 내용을 소개한다.

1. 문제 제기: 숫자에서 자유로와지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작다는 것을 '문제'로 간주해 어떻게 하면 큰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많다. 그러나 교회가 작다는 것이 곧 실패라는 것은 편견이다. 많은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든다.

- 작은 교회는 내부 지향적이다.
- 작은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 작은 교회는 사소한 시기심과 내분이 많다.
- 작은 교회는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려는 열의가 없다.
- 작은 교회는 계획없이 운영된다.
- 작은 교회는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교회가 아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일 뿐이다. 만일 작은 교회가 우호적이고, 외부지향적이고, 선교적이고, 혁신적이고, 관대하고, 예배가 풍성하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가정도 필요 없이 우리도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나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더 나은지를 주장하거나 작은 것에 만족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교회가 문제도 아니지만 미덕도 변명거리도 아니다. 핵심은 작은 교회도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회 성장은 고귀한 목표이자 큰 축복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교회의 숫적 성장의 렌즈로만 바라보면 많은 것을 놓지기 쉽다. 나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장에 관한 원리들을 실행해 보았고 실패를 경험하며 도발적 질문을 던지게 됐다: "지금의 작은 교회가 역동적이면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양적 성장의 렌즈가 아닌 새로운 렌즈로 보면서 변명이 아닌 믿음을 가지게 됐다. 예를 들면, 예배 음악이 훌륭하지 않다고 열정 없는 예배에 안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재정이 부족하다고 관대하게 배풀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옳지 않다.

동시에 교회가 작기에 유리한 점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목회자는 목자로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사역을 행할 준비를 잘 도울 수 있다. 대형교회와 달리 목회자가 필요시 쉽게 직접 목양을 통해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세세히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히 우리의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 자, 이제 새로운 렌즈를 끼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효율적인 작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더 잘 인도하고 신자들을 더 잘 목양하고 예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 이것은 작은 교회의 근본 원리이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월은 “새롭게 출발하는 달”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된 길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2.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하는 새벽집회와 기도운동에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이어 나갑시다.
3. 결산과 예산의 시기입니다. 각위원회와 사역팀은 2018년 사역 결산과 2019년 사역준비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4. 오늘 오후부터 제직/사역 세미나가 5주 간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주제: 질서와 평안으로 든든해지는 교회 / 1/13-2/10
5. 정기제직회/공동의회 공지
다음 주일(1/20) / 결산/예산 보고 및 1/4분기 사역 검토
6. 신년 심방을 위해 원하는 심방 날짜를 교우사역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Youth Ministry 의 성장과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8.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복음을 전하며, 감사와 풍성한 삶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섬김이

	1/6	1/13	1/20	1/27
주일예배기도	정홍렬목사	정줄리권사	최내권집사	박진성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11	1/18	1/25	2/1
	최선윤집사	구민집사	오정은집사	유덕하집사
주일헌금위원	1/6	1/13	1/20	1/27
	구민집사/오정은집사	김훈태집사/홍정임집사		
주일안내위원	1월			
	정줄리권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 골로새서 3:1-4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천국시민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을 더 의지하려 한다. 새해에 회복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더 찾으며,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도는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받은 사랑을 베풀며,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이처럼 위의 것만을 보고 달려갈 때 가능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 누가복음 15:11-24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폭포수가 쏟아지듯 부여주시는 '내리 사랑'의 비유에서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사람의 모습은?

둘째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최소 의무는 넘치도록 받는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 사랑의 품을 떠났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빨리 되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 누가복음 15:11-24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은 받은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했고 유산은 동이 나 당장 끼니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끝내는 돼지를 치게 됐지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회개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 데까지 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라며 기뻐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시도 잊지 못하고 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들은 몸과 마음이 다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난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온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이 못 말리는 사랑.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내리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탕자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화의 과정이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일탈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딱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괜히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것만큼은 탕자가 잘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최선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 차선은 됩니다. 후회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만신창이가 되어서 후회조차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없는 나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돌아와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탕자는 이것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